

나주시, 금성산 '시민의 품으로'... 도립공원 승격 본격화

호남 8대 명산 중 하나...선도정책과제 금성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매설지뢰 제거·광주 군공항 이전 연계 군부대 및 관련 시설 이전 논의

"금성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주를 상징하는 진산(鎭山)이자 호남 8대 명산 중 하나인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을 위한 나주시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나주시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군부대 이전 등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공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을 비롯해 권용석 한국수목평가연구소장, 김영선 한백생태연구소 부소장, 김태완 전광주전남녹색

연합 공동대표, 김휘중 춘천시 반환군사시설 민간검증위원회 위원, 김희승 동신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오찬진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바이오 과장, 박규건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성산위원회 서재철 공동위원장과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규현 담양슬로시티마을 선정심사위원, 이성자 동신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일정 상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김종일, 김용욱 선도정책추진단장과 나주시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부서장 등 추진단 10여명도 머리를 함께 맞췄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따른 시민공원 조성과 더불어 관광·휴양 등 소득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금성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과 영산강생태복원사업의 상호 연계를 통해 국내 최초 산과 강이 어우러진 국립공원 승격을 도모해갈 것"이라고 프로젝트 추진 포부에 대해 밝혔다.

채정기 공동위원장은 "금성산은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 대인지뢰 제거 등 큰 틀에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때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며 "도립공원 승격을 넘어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국립공원 승격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프로젝트는 금성산의 생태·역사·문화 등 유·무형 자원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금성산을 온전히 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과제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금성산 군부대 이전', '산포비상할주로 지정해지', '광주전파관리소 이전' 등이 포함됐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는 도립공원 승격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4월 육군 제31사단 공병부대와 산 정상 일대 매설 지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

금성산 매설지뢰는 지난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한 후방기지 방호 목적



으로 총 1853발을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대대적인 수거 작전을 통해 1771발을 수거했다.

시는 이번 작전을 통해 '70년대 말 산불로 인해 폭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를 제외한 잔여 지뢰 76발을 내년 7월 말까지 완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대인지뢰 제거와 함께 군부대 및 관

련 시설 이전 논의도 본격화된다.

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금성산 군부대 이전을 비롯해 산포비상할주로 지정 해지를 통한 주민을 위한 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광주전파관리소 이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음식관광 활성화 대표음식 선정 관광 흐름 변화·선호도 조사 통해 25종 선정

담양군이 담양 음식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 25가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음식은 담양군이 갖고 있는 식재의 우수성과 다양성, 음식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관광 추세와 고객층의 변화, 여행정보 습득 및 공유 채널의 다양화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증가할 국내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기존 담양 10미와 별미, 그리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키워드 검색, 음식/맛집 검색 및 추천서비스 사이트의 담양음식 언급 순위, 위치검색 애플리케이션의 담양음식 검색 현황 등 다양한 채널의 온라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후보를 주선했다.

이어 담양을 방문한 관광객과 담양군민을 대상으로 해당 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25가지 음식을 선정했다. 특히 전통음식·향토음식 중심의 지역 대표 음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적과 요구를 갖고 담양음식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급화 음식, 대중화 음식, 길거리 음식의 3가지로 분류해 활용도를 높였다.

담양군 관계자는 "새롭게 선정된 담양 대표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음식의 분야별 정보 구축, 이와 연계된 홍보 마케팅, 담양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 다각도의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가격 확 낮춘 체리 간이 비가림시설 규격 3종 개발



곡성군이 체리 수확기 열과 방지를 위한 저비용 체리 간이비가림시설 규격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체리 과실 특성상 수확기 강우에 의한 열과 피해가 심하고, 습해에 약해 장마철 토양수분과 과다한 경우 고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광주 등 체리 주산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체리용 비가림시설을 개발해 농가에서 활용하

고 있다. 하지만 3.3㎡당 설치단가가 6~7만원 선 절반 이하로 낮춰

고 있다. 하지만 3.3㎡당 설치단가가 15~18만원 선으로 대면적을 적용하기에 투자비가 과다한 단점이 있었다. 내재해 규격을 반영할 경우에는 3.3㎡당 25만원이 넘는 설치비가 소요된다. 최근 새로운 소득과수로 체리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곡성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열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설비가 저렴한 많은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 비가림시설 규격이 필요했던 것이다.

곡성군이 개발한 간이 비가림시설의 설치단가는 3.3㎡당 6~7만원 선으로 기존 시설 대비 설치비를 절반 이하로 낮췄다. 비 가림이 중요한 시시

곡성군이 개발한 간이 비가림시설의 설치단가는 3.3㎡당 6~7만원 선으로 기존 시설 대비 설치비를 절반 이하로 낮췄다. 비 가림이 중요한 시시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군, 하천 구역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화순군이 오는 30일까지 지역 지방 하천 62곳과 소하천 400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작 행위 근절과 환경 보전을 위한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인다.

화순군과 읍·면 담당 직원으로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 구역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수질 오염과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점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

범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적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하천 구역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새콤달콤 쫄깃한 '장성 분향찰토마토' 재배 확대

장성군이 분향찰토마토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군은 최근 전남남도 농업기술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고품질 원예작물 특화단지 육성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8억원 규모로 찰토마토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장성 지역의 찰토마토 산지는 남면 분향리 일대로, 11개 농가에서 5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하우스 신축 ▲토양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재배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찰토마토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장성군의 분향찰토마토는 기존 토마토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고 쫄깃한 식감과 상큼한 풍미를 지녔다. 때문에, 일반 토마토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명품 토마토'로 인정받고 있다.

재배 시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 장성 분향찰토마토는 점토 함량이 높은 토질의 특성을 이용한 건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까지 6ha 규모로 분향찰토마토 재배 면적을 확대해,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